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재개발 주변 교통환경 개선”

정삼길 의원 주장

전주시 서신동 비구벌 지역 재개발을 비롯한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정삼길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이와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신동 비구벌 재개발 지역 서신교 교차로 주변 전주천 서로의 경우 우회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서신교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자기 차선을 안 지키는 차량 때문에 측면추돌사고의 위험과 함께 상시 정체구간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서신교 교차로의 경우 교량길이가 짧고 전주천도로~벚꽃로 우회전 방향은 항상 차량들로 병목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 지역은 2020년에 1,3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도로확장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좁은 도로와 교량 등으로 최악의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라



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 곳 재개발 측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도로에 대한 대책은 단지 내 도로 및 진입로, 접근로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주변지역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인허가 단계에서 심의 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향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입주 전에 재평가를 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 할 것 △병목현상이 심한 교차로 신호체계개선이나 가변차로 개설 등과 함께 다양한 통행특성을 파악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전주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수립△현 전주천서로(서신교~진북교) 구간의 3개 차로를 차량 진출시 약 300m의 짧은 구간이지만 4개 차로로 확장 할 것을 제안했다. /송효철 기자

“실효성 있는 양곡정책 추진”

이남숙 의원 “수혜계층 욕구 반영... 미질 관리 통해 적정 수분함량 유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의원은 15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양곡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혜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정부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양곡 지원 사업’을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의 약 50%에 할인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0%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들이 정부양곡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정부양곡이 수분함량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쌀보다 낮은 맛이 좋지 않고 훈증 소독하는 데 쓰이는 약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양곡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민원은 일반 시중에서 사서 지은 쌀에 비해 퍼석하고



밥을 지은 후 급방 마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 정부양곡으로 지원되는 쌀 역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과 같은 해에 도정된 것으로 맛이 더 떨어질 일은 없다는 대답뿐이다

따라서, 그는 “수분함량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은 전주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철저한 정부양곡의 미질 관리를 통해 지원양곡의 적정 수분함량을 유지 할 것 △양곡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지원되는 양곡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것 △지원되는 쌀의 일부를 잡곡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 할 것 등을 전주시에 제안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칠봉 팔각정 재개방

완산공원 정상에 있는 팔각정이 보수, 단청 공사를 마치고 재개방 됐다. 완산공원은 완산칠봉으로 많이 불리며 전주시의 중앙부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다.

또한, 산정상 장군봉(해발 185m)에 위치한 팔각정에 오르면 전망이 좋아 전주시가지와 건지산, 삼천들 등 시권역의 풍경을 볼 수 있다.

1970년도에 건립된 팔각정은 노후화로 지붕누수와 단청이 퇴색되어 그동안 낙후되었다는 지적과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민들의 휴식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공사비 1억7천만원 예산으로 보수공사에 들어가 △지붕기와와 부식목부재 교체 △단청공사에 화강석 판재로 시공하고 △단청공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존에는 목부재로만 되어있던 것을 상부 콘크리트보는 모로단청으로 △콘크리트기둥과 안전난간 기둥은 석간주철로 확대 시공해 팔각정 전체의 이미지 향상으로 건축물의 특수성을 살렸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병원 불자회 후원금 기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병원 불자회에서 부처님오신 날을 기념하여, 불우환우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과 철처어 2대를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후원내용은 병원 불자회 회원들과 참회 때마다 모은 보시금 100여만원과 참좋은우리철 거사회와 전북대병원 불자회소프스에서 철처어 각 1대씩 2대를 기증했다. /김영태 기자

버스정류장서 강제추행 30대 검거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0분경 전주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해당 버스 정류장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삼승 빈집털이 50대 ‘덜미’

주객가를 돌며 삼승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 35분경 남원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7만 원과 담배 3보루 등 총 3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낮 시간에 사람이 없는 집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수차례 현수막 때 간 일당 붙잡혀

삼승적으로 담배라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때 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 50분경 익산시내 한 노상 담배라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낚으로 뺏 후 떼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12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등을 통해 A씨 등을 체포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 기령당 422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옥마을 연계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 보존 노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 제422주년 기념행사가 15일 전주 기령당 역사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상철 당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과 대한노인회 전영배 전주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령당은 전주 완산동 군자정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예로부터 전라관찰사나 전주 부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으로 지금도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

치인과 기관장들이 어르신들의 덕담을 듣기 위해 발걸음 이어지고 있다. 이상철 당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422년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기령당 당장으로서 기령당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기령당이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해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인 15일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을 방문해 직접 문구를 새겨넣은 머그잔을 선물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저소득층 570여명에 일자리 제공

전주시, 울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 작년보다 54명 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이 확대된다. 전주시는 2019년도 자활근로사업이 전주지역 2개의 지역자활센터, 29개의 자활사업단, 15개의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확대된 연간 576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4명 늘어난 것이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주민에게는 자존감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의 다각적인 방향 제시로 탈 수급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에 대해 2개월 동안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담 및

사정, 자활사업단의 수습기간 참여 등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월 1회 이상의 내부사회의를 통해 개별 참여주민의 문제를 발견해 복지서비스도 연계해주고 있다.

전주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매월 1회 자활사업 전체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채무 △건강 △정신질환 △응급안전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문화활동과 동아리 활동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덕진지역자활센터도 △참여자들의 자존감의 향상을 위한 인문학 강좌 △소통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문심리 치료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를 위한 학습교재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세외수입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전주시가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나섰다. 시는 15일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체계적인 세외관리와 징수체계를 갖추기 위해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세외수입 과징과 압류를 비롯한 체납처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서 ‘공공건축 1차 포럼’

전주시가 건축 전문가와 지역건축가 등이 참여하는 공공건축 포럼을 통해 사업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1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공공건축 1차 포럼을 개최하고, 사업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건축 분야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 전주시가 만들어 나아가야 할 공공건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이날 포럼에는 최현진 전주시 총괄 조경건축가이자 ㈜씨토포스 대표이사 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도시 디자인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전주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됐다.

최 대표는 이날 강의에서 싱가포르와 영국 등 해외의 우수 녹지공간 사례와 본인이 설계한 △서서울호수공원 △부서울품의 숲 △무안 백련지 등을 토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삶과 연결된 디자인이 갖는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송효철 기자

‘두 바퀴로 행복하게 달려요’

전주시, 25일 ‘시민 자전거 행진’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이 기린대로와 백제대로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을 출발해 종합경기장사거리와 전주역, 아중역을 지나 전주시청 노송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11km코스를 달리는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는 시민 체합단 50명을 모집해 공영자전거로 행진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홍보 및 지난 행진 사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덕진지역자활센터의 두바퀴

행복사업단에서 자전거 점검 및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수리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전주시민자전거행진’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시 자전거정책과(281-2502)로 전화 또는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단, 공영자전거 체합 신청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에 한해 신청 받고 있으며 공영자전거 행진 참가자는 행진 당일 자전거의 대여·반납을 위해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시는 5월에 이어 6월, 9월, 10월에도 시민 자전거 행진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